

# 협업 단속으로 도내 황금어장 지켜

### 서해어업관리단·지자체, 육·해상 특별단속... 타지어선 불법조업·도계위반, 불법어획물 유통 등

전북도는 가을철 전어, 꽃게 성어기를 맞아 타지 어선과 무허가 어선의 불법조업의 사전예방을 위해 서해어업관리단과 지자체 합동으로 이달 초부터 육·해상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최근 전남 및 경남 등 근해선망어선이 선단을 이뤄 도내 해역에서 조업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어린 물고기 포획, 무허가, 조업금지 구역 침범, 불법어구 사용 등이 해상에서 집중단속이 이뤄지게 된다.

또한 수협 위판장 및 재래시장 등 불법어획물 유통·판매에 대해 육상 단속을 병행하고, 서해어업관리단과 해경서 간 협업해 황금어장 수호 및 소형어선어업인 보호를 위해 우심해역에 대한 야간단속과 육·해상 합동 단속을 통해 엄정 대처기로 했다.

그동안, 산란기 어패류 보호를 위해 불철(5월) 전국일제 합동단속과 멸치 포획허위 불법어구사용 및 조업금지 시간 위반행위 증가예상에 따라 서해안 멸치 불법포획 특별단속을 실시한 바 있다.

이번 특별단속은 연안(소형)선망 어구변형과 도계 위반, 연안조망 조업 구역 위반 및 조업금지시간 위반 행위 등 지속적인 단속에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업종의 단속역량 강화로 진행된다.



**3천송이 포도농장 찾아** 송진도 도지사는 1일 탄소순환농법으로 한 그루 포도나무에 3천송이의 포도가 열리는 것으로 기네스북에 등재 도전 중인 고흥 화성농장을 방문해 도덕현 대표로부터 주요농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특히 어구초과사용 및 자원남획을 업종에 대해서도 육·해상 특별단속을 10월 전국일제 합동단속과 연계해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수협 위판장에 대해서는 이달의 수산농산물 포획 금지기간, 금지체장(어종) 등을 사전계도 후 위판이 실시

되도록 사전계도와 더불어 시기별 금지어종 및 체장 등 지속적 어업인 지도·홍보에도 힘을 기울인다.

김대근 도 해양수산과장은 "전어, 꽃게 성어기에 타 지역 소형선망어선의 연안(5.5km이내)조업 및 무허가 어선조업 등 마구잡이식 불법어업에

대해 강력한 단속과 함께, 특히 야간 불법조업을 막기 위해 지도선을 우심 지역에 상주 배치해 서해 황금어장 수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우리 지역어업인들도 건전한 어업질서가 조기에 확립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민형 기자

## “검찰 법조비리 근절대책은 미봉책”

### 경실련 “새로운 것 없다”... 참여연대 “제 살 도려내기” 못해

시민단체는 1일 검찰의 법조비리 근절대책에 대해 “실효성 없는 미봉책”이라고 평가했다.

검찰은 전날 검사 비위와 법조비리 대응,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검찰간부 비위 전담 특별감찰단 신설, 선임 제를 내지 않은 변호사의 변론 활동 전면금지 등을 골자로 한 법조비리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성명에서 “대부분의 대책들이 그동안 검찰이 문제가 생길 때 마다 반복해서 내놓은 개혁안이었던 검찰기능 강화, 징계 강화 사항으로 전혀 새로운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검찰의 내부감찰 능력도 국민들이 전혀 신뢰하지 않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외부에서 감시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관점사 뿐 아니라 고위공직자까지 그 수사대상을 확대하고 예산과 인사, 조직의 독립성이 보장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검찰 수사권 조정만이 사법개혁을 완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도 “검찰의 독점적 권한을 개혁하는 근본적 방안은 외면한 땀질식 셀프개혁안으로는 전·현직 검사들의 부패비리를 근절할 수 없다”며 “국회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과 검찰개혁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검찰의 셀프감찰, 셀프수사로는 더 이상 ‘제 살 도려내기’를 할 수 없는 검찰이 문제인 것”이라며 “검찰은 흥만표, 진경준, 우병우 관련 검찰수사와 재판과정에 제대로 임하는 것이 검찰 개혁의 첫 단추임을 명심하라”고 꼬집었다. /뉴시스

## “초등생이 15세 게임해요” 신고 급증

### ‘오버워치’ 관련 신고 잇따라 치안공백 우려

“최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게임 ‘오버워치’ 관련 신고가 경찰에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 신고의 주 내용은 “초등학생들이 15세 이상 게임을 한다”는 것인데 일부는 사소한 시비 끝에 접수되기도 해 자칫 치안력 낭비가 우려된다.

1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 간 112상황실에만 하루 평균 4~5건의 게임 연령과 관련된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들은 “PC방에 왔는데 초등학생들이 15세 이상 게임을 하고 있다. 알른 단속을 해달라”고 경찰에 출동을 요청했다.

경찰은 대부분 현장에서 출동해 초등학생들이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을 적발하고 해당 PC방을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

신고가 집중된 게임은 지난 5월 출시된 슈팅게임 ‘오버워치’로 최근 PC

방 점유율 1위를 차지하는 등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게임이다. 게임 내 캐릭터들이 총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15세 이상 연령 등급을 받아 출시됐다.

하지만 일부 초등학생들은 게임을 하기 위해 부모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사이트에 가입하고 있어 최근 PC방 업주들의 가장 큰 골칫거리로 떠올랐다. 특히 자리가 부족할 때는 일부 손님들이 게임 중인 초등학생을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가 빈번해 PC방 업주들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해야 하는 경찰은 곤혹스러운 눈치다. 치안수요에 비해 부족한 지구대·파출소 직원들이 강력사건에 대비하기 보다 초등학생 지도에 힘을 쏟아야 하는 상황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뉴시스

## 5일, 로컬푸드 직거래장터

### 지방행정연수원 1층 로비서... 10~30% 할인 판매

전북도는 농업중앙회전북지역본부와 공동으로 ‘추석’을 맞이해 지방행정연수원 1층 로비에서 로컬푸드 직거래장터를 오는 5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로컬푸드 직거래장터는 지역 농특산물 판매 확대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내 중소농 및 마을에서 생산한 마을상품, 6차산업 인증품, 우수 농특산물 등 로컬푸드 중심의 다양한 품목으로 14개 시군에서 32개 업체가 참여한다.

주요 품목으로는 과일 선물세트,

신선농산물, 한과류, 장류 등 160여 품목으로 구성된다.

특히, 이번 장터는 일반 시중가격보다 10~30%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지역 우수한 농특산물을 홍보하는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

김정모 도 농촌활력과장은 “도내 마을 생산품 및 안전한 우수농산물 등을 유통단계 없이 소비자에게 공급해 농민이 행복하고, 농촌에 활력 넘치는 모두가 행복한 삼락농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 ‘장수레드푸드 융복합센터’ 내년 추진

### 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 확정... 국비 23억 등 총 46억 투입

‘장수레드푸드 융복합센터’ 사업이 국토교통부 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으로 최종 확정됐다.

장수군은 ‘장수레드푸드 융복합센터조성사업’이 국토부의 국가사업 공모에 확정됨에 따라 2017년부터 ‘장수레드푸드 융복합센터’ 구축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장수레드푸드 융복합센터는 당초 민선 6기 군수 공약사업인 ‘장수 만남의 광장’으로 계획했던 사업으로 국비 23억원, 군비 23억원 등 총 46억원을 투입해 장수군 계남면 호드리 IC 부근에 총 면적 25,633㎡의 1층 건물을 신축할 계획이다.

또한 방문객 안내센터, 레드푸드식당, 직판장, 레드푸드가공체험장 및 이벤트광장, 레드푸드생태공원 등을

조성, 장수의 관문인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해 “지나가는 장수”가 아닌 “찾아오는 장수”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최용득 장수군수는 “장수레드 융복합센터는 장수지역의 랜드마크로서 방문객 유입과 지역민의 다양한 경제 활동을 기반으로 지역간 격차 및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등 낙후된 지역에서 탈피할 수 있는 최적의 적지로서, 장수군 발전의 핵심 거점 공간이 될 것”이라며 “기 조성되어 있는 장수군 농산물유통센터와 오미자 와이너리 등 지역 기반시설을 중심으로 장수 지역산업과 관광산업을 연계해 장수군 미래의 100년 신성장 동력 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수=고관호 기자

## 완주·진안에 대기오염측정소 설치

완주와 진안에 대기오염측정소가 설치된다.

1일 전북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대기오염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기오염측정소가 내년에 완주와 진안에 설치된다.

이에 미세먼지를 비롯한 대기오염물질과 풍향, 풍속 등 기상인자를 측정할 수 있는 최신 장비를 갖추게 된다.

혁신도시가 조성되고 산업단지가 밀집 돼 있는 완주의 경우 그동안 측

정소가 없어 대기오염 농도를 알 수 없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됐었다.

또 동부권인 진안에 측정소가 설치되면서 인접지역인 무주·장수 등의 대기오염 농도도 알 수 있게 됐다.

측정소 2곳이 신규로 설치되면서 도내 대기오염측정소도 기존 8개 시군 15개 측정소에서 10개 시군 17개 측정소로 확대 운영된다.

이번 신규 설치와 함께 노후화된 전주 삼천동 대기오염측정소의 장비도 교체된다. /뉴시스

## 제10회 전국장애인가요제 안내

장애인의 삶을 풍요롭고 아름답게 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분야 참여 확대를 위하여 매년 장애인 가요제를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와 관심을 기대합니다.

- ① 참가자 신청 : 등록 장애인 누구나 (16세이상)
- ② 신청방법 : 대중가요 1곡 선정하여 전화, 방문 팩스로 신청가능 (8월 31일까지)
- ③ 참고 : 도민누구나 관람가능. 행운권 추첨하여 상품 증정함

- \* 일시 : 2016년 9월 3일 (토) 오후 4시 30분
- \* 장소 : 전주 풍남문 문화광장 (남부시장 입구)
- \* 주최 : 전북장애인 복지문제연구소
- \* 후원 : 전라북도, 한국연예인협회 전북지부, 전북장애인 신문사



대회본부장: 김양욱



MC: 최현아(가수 겸 MC)

### 전북 장애인 복지문제 연구소

T. 286-6678 F. 287-6678

## “전주매일신문은

##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